

# 스페인국가법정에서 집단학살죄 등으로 강택민 등 중공 두목 5 명을 기소

최근에 스페인법정에서 집단학살죄 및 흑형죄로 중공 두목 강택민, 라간, 오관정, 가경림, 박희래 5 명을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법정의 개정에 대해 피고는 4~6 일내에 응답해야 한다. 그 때가 되면 피고는 만일 스페인과 인도 조항규정

을 체결한 모든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스페인은 법에 의해 피고를 스페인국내로 인도할수 있다. 법원통지서에서 만일 피고의 죄명이 성립된다면 적어도 20 년 도형에 직면하게 되고 또한 경제상의 징벌도 첨부한다고 표시했다.



강택민



라 간



오관정



가경림



박희래

## 스페인에서 강택민을 기소한것은 력사의 필연이다.

1999 년 7 월 20 일, 강택민이 강압적으로 중공의 일체 기구를 총동원하여 파룬궁탄압을 시작한 초기에 중국대륙의 파룬궁학원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중국최고검찰원과 중국최고법원에 “신소서”를 교부하여 그 당시 중공총서기 강택민, 중공서기처 서기 증경홍, 정법위원회 서기 라간이 헌법과 법을 위반하여 파룬궁을 박해한 죄행을 고소했다. 기소장은 법률문서일뿐만 아니라 또한 강택민이 파룬궁을 박해한 진상이었다.

2002 년 10 월부터 지금까지 강택민과 “610 사무실”은 집단학살죄와 흑형죄로 유럽, 아메리카주, 아세아주, 오스트레일리아 등 여러나라 법정에 기소되었다. 강택민집단은 파룬궁수련생들에 대해 온갖 악렬한 수단으로 전례없이 잔혹하게 박해했다. 하지만 중국대륙의 파룬궁수련생들이 “썬싼런”에 대한 신념은 더욱 굳세여졌다. 전세계 파룬궁수련생들은 자발적으로 도처로 다니며 각종 방식으로 파룬궁진상을 이야기하여 정의의 지지를 얻었고 사람들의 량지를 불러일으켰

다. 강택민과 중공은 수많은 나라의 정부와 국제여론의 질책을 받았다.

력사적인 관점으로부터 볼때 강택민을 기소한것은 력사의 필연이다. 사악이 제아무리 발광해도 정의는 사악을 전승하고 “썬싼런”의 정신은 필연코 승리할것이다. 10 년은 한사람의 일생에서 길다고 할수 있지만 5 천년 중화문화에 비해보면 력사의 한페이지에 불과하다. 인생은 이렇듯 짧지만 선과 악의 선택에서 결정되는것은 영원한 생명인것이다. 파룬궁을 박해하고 적대시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력사에 의해 도태될것이다. 사악의 두목들이 법에 의해 사형되고 인간은 사악에 대한 심판의 서막이 열고 새로운 력사의 한페이지를 번질때 시간을 틀어주고 진상을 료해하고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정확한 선택을 해야만이 영원한 유감을 남기지 않을수 있다.



## 세계인권일 영국의회에서 중국인권문제연구토론회를 거행



지  
난 12 월  
10 일 세  
계인  
권에  
중  
국인  
권  
문  
제  
도  
론  
회  
를  
거  
행  
했

다. 데이비드-매터스 선생은 “피비린 생체기관적출”이란 책을 소개했다.

## 세계인권일에 파룬궁학원들이 연합국에서 박해를 폭로



지  
난 12 월  
10 일,  
세계  
인  
권  
일  
에  
파  
룬  
궁  
학  
원  
대  
표  
와  
기  
타  
인  
권  
조  
직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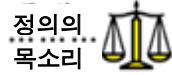
표들이 뉴욕주재연합국인권위원회 대표와 대사를 회견했다. 파룬궁발언인 장이평(왼쪽)은 “피비린 기관적출”이란 책을 소개하고 국제사회에서 공동히 중공의 폭행을 견책하고 박해를 제지할 것을 호소했다.

## 대만 도란국립중학교 교경절에 파룬궁공법을 표현



지  
난 12 월  
11 일 대  
만 고  
란  
국  
립  
중  
학  
교  
교  
경  
절  
운  
동  
대  
회

의 개막식에서 100 여명 학생들이 파룬궁 5 조 공법을 표현했는데 그 동작이 정연하고 아름답고 상서로워 학부형들과 귀빈들은 찬탄했다.



## 리봉운은 죄가 없다

지난 12 월 21 일 오전 9 시, 화룡시법원에서는 개정하여 연길시파룬궁학원 리봉운(李凤云)을 심판했다. 개정이 시작하자 심판장은 《변호사는 이미 결정지는 파룬궁의 성질문제에 대해 변호하지 못한다.》고 무리한 요구를 제기했다. 공소인이 파룬궁은 ‘X 교’라고 제출할 때 변호사는 공소인들더러 파룬궁을 ‘X 교’라고 결정한 유관법률조문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자 공소인은 말문이 막혀 그만 머리를 숙였다. 매개 사법인원들은 1999 년이전과 지금에도 중화인민공화국 소유 법률조문에 파룬궁은 ‘X 교’라고 결정한 것이 없다. “파룬궁은 사교이다.”라고 말한것은 강택민독재정권의 개인행위이다. 공소인이 리봉운에게 파룬궁진상소책자를 배포했다는 죄명을 씌울때 변호사는 《이 파룬궁소책자의 내용은 파룬궁박해 받은 진상을 이야기한것이며 어떠한 법률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것을 범죄의거로 삼을수 없다.》라고 강력히 말했다. 또다시 반박당한 공소인은 더는 할말이 없었다. 계속하여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사자 리봉운은 파룬궁을 연마하여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전히 하였으며 좋은 사람이 되어 사회에 백가지 유리할뿐 하나도 해로운 점이 없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선전하고 파룬궁박해진상을 이야기하는것은 어떠한 법률에도 어긋나지 않으며 어떠한 법률실시도 파괴하지 않았다. 아무죄도 없는 리봉운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

파룬궁을 위한 변호사의 무죄변호는 수많은 경찰들의 마음을 감화시켰다. 변호사가 법정을 떠날때 진상을 알게 된 어떤 경찰들은 그와 악수를 했다.



## 약물주사를 맞고 세상 뜬 할빈시파룬궁학원 수경강

할빈시파룬궁학원 수경강(隋景江)은 할빈시장림자로교소에서 두차례 약물주사를 맞았다. 2006 년 11 월말 로교소에서 집으로 돌아올때



그는 정신이 혼미했고 겨우 걸었으며 추운 겨울에도 흙옷을 입고 밖에서 마구 뛰어다녔다. 지난 11 월 6 일, 그는 원한을 품은채 세상을 떠났다.